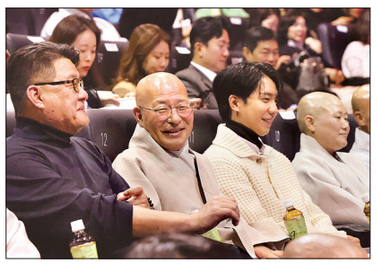
스타 스님 앞에 나타난 아이들은 누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시사회에 참석한 진우 스님과 배우 이승기.

주지스님 주인공 영화 〈대가족〉
배우 이승기, 직접 삭발 화제도
조계종, 영화제작 초기부터 도움
진우 스님 "진정한 가족 알려줘"



영화 〈대가족〉이 12월 11일 전국 동시 개봉한다.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 함무옥(배우 김윤석)은 대를 이을 줄 알았던 외아들 함문석(배우 이승기)이 스님이 돼 출가한 이후 근심이 깊다. 그러던 어느 날, 끊겨버릴 가문 걱정으로 아들이 출가한 이후부터 웃음을 잃은 그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아이들이 찾아왔다. 문석이 자신의 아빠라며 방문한 손주들을 보며 무옥은 난생 처음 맛보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문석은 스님이 되기 이전의 과거를 되짚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간략한 스토리만으로도 황당하고 귀여운 전개를 예고하는 영화 〈대가족〉은 스님에게 찾아온 의문의 핏줄과 대가 끊기게 생긴 함씨 가문, 전대미문의 캐릭터 함무옥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들어가면서 박수치며 즐길 수 있는 순도 100% 웃음을 제공하는 가족 공감 코미디 영화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작은 사회 '가족'을 소재로 양우석 감독만의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간다.

스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대가족〉 특별시사회가 11월 19일 서울 롯데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렸다. 제작 준비 당시부터 조계종이 도움을 준 것을 인연으로 배급사가 오직 불교계만을 위해 특별 시사회를 준비한 것.

〈대가족〉에서 주인공 배우 이승기가 연기한 무애 스님은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타 스님이다. 재미있는 법문과 친근한 상담, 잘생긴 얼굴, 게다가 의대생 출신이라는 백그라운드까지 단연 돋보인다. 의사가 되자마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스님이 됐고 아버지와의 연도 끊어버린다. 잘나가는 노포 맛집도, 고스펙의 의사 면허증도 반납했지만 불교계에서는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슈퍼스타 주지스님으로 촉망받는다. 실제 〈대가족〉은 무애 스님이 큰 법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부대중 앞에서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승기 배우는 이번 작품을 위해 머리를 삭발, 영화 속에서 직접 머리를 미는 장면을 연출하는 열정을 보여줬다. 〈대가족〉이라는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이승기 배우는 삭발 과정에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임했고 역할 몰입을 위해 장시간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생활과 습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중물'을 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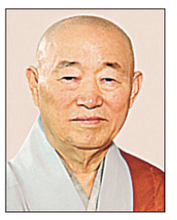
시사회에서 만난 이승기 배우는 "감히 백양사 주지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스님들로부터 불교 정신을 배우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시사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영화"라며 감동을 전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영화 〈대가족〉은 12월 11일 전국 동시 개봉한다.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한암상 수상

성운학술상 대상에 자성 스님
12월 17일, 시상식 및 학술대회


성우 스님


자성 스님

제3회 한암상 수상자로 조계종 전 전계대화상이자 BTN불교TV 회장인 성우 스님이 선정됐다. 제7회 성운학술상 대상은 동국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성 스님에게 돌아갔다.

(사)한국불교학회는 11월 20일 월정사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 및 학술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성우 스님은 1963년 파계사에서 고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총림 율원을 졸업했다. 이후 1996년에는 조계종 단위사찰 최초로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파계사 영산율원을 설립하며 현대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은 "성우 스님은 계율과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며 율사로서 모범적인 발자취를 남겼다"며 "이번 수상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자인 자성 스님은 '기도가피에 대한 동곡 일타의 관점'을 통해 일타 스님의 기도사상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며 불교 신앙과 학문 간의 연계를 조명했다. 논문은 기도가 신앙적 실천뿐 아니라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중요함을 입증하며 현대 불교의 기도문화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금강경 기도의 의미 탐색 연구'를 발표한 손강숙 중앙승가대 부교수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황금연 동국대 연구원, 문상련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염중섭 중앙승가대 부교수, 최영임 중앙승가대 석사과정생, 김나래 엄마뱃속 태교명상연구소장, 이상호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성운학술상 대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에는 500만 원, 장려상에는 각 100만 원씩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신앙과 가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정현선 기자

故 김성철 선생 1주기, '체계 불학' 의미 재조명

11월 15일 추모 세미나

(사)한국불교학회는 11월 15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도남 김성철의 학문 세계와 체계 불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김성철 선생의 업적을 되새겼다.

자현 스님은 개회사에서 "선생님의 삶이 치열했던 만큼 그의 업적도 크다"고 추모했으며, 성운 스님은 추모사에서 고인의 진리 탐구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기리며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국대 철우 스님과 이평래, 백도수 전 한국불교학회장이 애도사를 통해 고인의 가르침과 유산을 되새겼다.

제자들인 단원 스님, 유지원, 박종부 씨가 낭독한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윤종갑 동아대 교수, 정상교 금강대 교수, 김영미 능인대 교수는 학술발표에서 김성철 선생의 학문적 성취와 연구를 조명하며 그 의의를 평가했다. 정현선 기자

예천 보문사 신중도, 도난 35년 만에 본래 자리로

조계종 협의로 신중도 반환 확정
국가유산청 조사로 소장처 확인
도난품 인정, 조건 없는 반환
ICOM 윤리와 종교적 가치 존중


경북 예천군 보문사에 봉안돼 있다가 도난당한 뒤 35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신중도.

예천 보문사의 신중도가 도난된 지 35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로써 1989년 도난당했던 세 점의 불화가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조계종 총무원 방문단(대표 문화국장 신해 스님, 직지성보박물관장 진웅 스님)은 11월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관장 반야 말로이)을 방문해 협의를 통해 신중도 반환을 확정했다.

신중도는 1989년 6월 5일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아미타불회도, 삼장보살도와 함께 도난당했다. 이후 아미타불회도와 삼장보살도는 2014년 환수돼 보문사에 봉안됐지만 신중도는 행방이 묘연했다. 2023년 6월,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스마트미술관에 신중도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환수의 물꼬를 텄다.

조계종은 같은 해 8월 스마트미술관에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봉했다. 스마트미술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 강령에 따라 신중도 반환을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신중도는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불화로,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 좌우에 배치한 독창적인 구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같은 해 같은 화승이 그린 삼장보살도는 환수 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으며, 조계종은 신중도 역시 이에 준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환 결정은 ICOM의 박물관 윤리 강령에 근거한 조건 없는 반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스마트미술관은 도난의 역사와 종교적 가치를 인지하고 조건 없이 반환을 결정했으며,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 측의 선의와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사례가 국제 사회에서 도난 문화재 반환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도의 도난의 역사와 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환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준 시카고대와 스마트미술관 측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사찰 불단' 문화유산적 가치 조명하다

불단 연구 성과 공유 '학술대회'
전국 사찰 불단 조사 5년 결실

사찰 불단을 독립적인 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디지털 기록화와 보존 환경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 불단 조사·연구의 성과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고 불전을 장엄하는 단으로, 불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예경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불단은 사찰 건축물의 부속물로 간주되며 독립적인 문화유산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전국 55개 사찰에서 불단 72점, 장엄구 82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 사찰에서 불단 내부와 외부에 남겨진 묵서, 제작자와 후원자의 이름, 조성 시기를 언급한 14건의 명문 자료가 발굴됐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내부 구조물을 청소하며 발견된 묵서를 통해 1725년에 건물, 불상, 불단이 동시에 조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불단이 단순한 건축 부속물이 아니라 당시 신앙과 불교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김대운 젠헤리티지 문화재병리연구소 대표는 불단이 화재, 습기, 해충 등 손상 요인에 취약하다며 "목재 특성을 정밀히 분석하고 손상 패턴을 예측해 적합한 보존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닫집(천개)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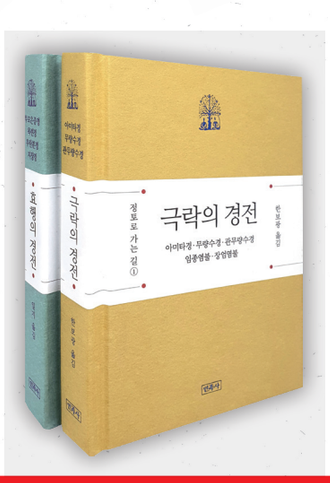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